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관계



2008년 5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혜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관계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혜진

김혜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2008년 5월



주	심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주의력의 발달 .....	7
2. 주의력과 학업성취 .....	14
3. 주의력과 학교적응 .....	16
III. 연구방법 .....	26
1. 연구대상 .....	26
2. 연구도구 .....	26
3. 자료처리 및 분석 .....	29
IV. 연구 결과 .....	31
1.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점수 분포 .....	31
2.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	33

3. 아동의 주의력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	35
4. 아동의 주의력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	39
<b>V. 논의 및 결론 .....</b>	<b>44</b>
1. 논의 .....	44
2. 결론 .....	47
참 고 문 헌 .....	49
<부 록> .....	54



## 표 목 차

<표 1> 학교적응 검사문항의 신뢰도 .....	29
<표 2> 초등학생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점수 분포 .....	32
<표 3> 초등학생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	34
<표 4> CCTT-1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검증 .....	35
<표 5> CCTT-2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검증 .....	37
<표 6>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검증 .....	38
<표 7> CCTT-1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검증 .....	40
<표 8> CCTT-2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검증 .....	41
<표 9>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검증 .....	43

##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of Atten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and School Adaptation

Psychology Education Kim Hye Jin  
Directed by Professor Lee Kyeong Hwa

Recently, the inattentive students are easily found in the education field of primary school. They cannot often concentrate on the basic coursework, so they get in trouble with schoolwork attainment.

It brings about poor lesson progress and the lesson effect reduction of the entire class. Also, their impulse, hyperactivity and lots of fights with other students increase the difficulties of parents and teachers.

Studies for years are about the school life adaptation and schoolwork attainment or most of the studies were about school adaptation of ADHD students.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re are almost no studies about a little inattentive students who are not in the stage of ADHD. It appeared to me that we need to know the correlation of a little inattentive students who can be found in any school hours with learning attainment and school adaptation.

So,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orrelation of students' attentive with learning attainment and school adaptation.

Firs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relation of the children's attentive, learning attainment and school adaptation and then studying the learning attainm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ildren's attentiveness and differences of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children's attentiveness.

The questionnaire for school adaptation are made out after doing CCTT Test carried by children, sixth level in the primary school in Pusan. Pearson's 적률상관계수 was produced from the data, first and second final exam grades, as the standard of learning attainment through using SPSS 12.0 program.

The differences of learning attainment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attentiveness were analyzed through separation sample T verification after dividing two groups, an above the average group and an

below the average one, with a standard which is attentiveness standard grade.

Exami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very remarkable result, the learning attainment result of the students with high attentiveness was higher than the students with poor attentiveness, was produced. Especially, partion attentiveness is related with learning attainment more in the field of attentiveness.

But, any remarkable correlation was not found between learning attainment and attentiveness, It was produced that attentiveness is not related with school adaptation.

The proposal for the following study is like following.

First, the following study needs to examine the relation of attentiveness with learning attainment and school adaptaion through the research carrying out by the children of wider scope age group and by the children with various background becau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the only one group, one sixth level students in one primary school. Second, the following study needs to increase the accuracy with the more students becau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60 students, the minimum number of students, owing to the difficulties of CCTT test.

Keyword : Children of Attention, Academic Achievements, School Adaptation, CCTT test, educational psycholog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에는 적절한 지도가 결여되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주변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쏟아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아동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은 교사의 수업에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 수업에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기도 하며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등 활동수준이 높다. 산만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과제학습에 참여하지 못해 학업성취도의 문제를 일으켜 학습 부진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주변 아동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학급 전체의 수업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부여된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충동성과 과잉 행동을 보이며 다른 아동과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 또래 아동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는 아동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조봉환, 2000). 이러한 어린이들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사와 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상춘과 조인수(1991)에 의하면 주의 집중은 아동들의 모든 학습의 선수기능이라고 하였고, 여광웅(1992)은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 및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Robin(1992)은 이런 주의집중의 결함을 그대로 두면 아동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통제와 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며 자칫 사회적 문제아로 성장할 우려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며 주의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임미은, 2003, 재인용).

결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주의집중이 요구되고 주의집중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져 학습지체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취율을 떨어뜨리며 자신감을 감소시켜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

심할 경우 주의집중 결함은 흔히 충동성 및 과잉행동 증상을 동반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학업이나 주의 지속을 요하는 과제에서 주의 집중을 못하고 충동성으로 인해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하며 지나치게 과다한 움직임 등을 보일 때 과잉행동증(Hyperactivity) 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전체 아동의 15-20%를 과잉행동증이라고 한다(Ross & Ross, 1982). 어린이들의 이러한 과잉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로 명명된다(임경희, 조봉환, 2004). 이런 아동들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교육적 개입시기를 놓침으로써 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력은 학교 학습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변인으로 아동의 주의력의 부족을 간과하고 방치하면 이후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의력은 학습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조기에 주의력 발달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아동기의 주의 집중은 학교 적응 문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김춘희, 2000).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나와 집단 속에서 사회 훈련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교 집단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백영광, 2000).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 집중이 되지 못하는 아동들은 주의 집중이 어렵고 주의 집중기간이 매우 짧아 지각적이고 논리적인 탐색 전략이 요구되는 복잡한 인지 과제의 학습이 곤란하며, 행동적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여러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지적, 행동적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학업성적,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부모, 교사, 또래 등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자신감의 결여와 우울감 등의 이차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조수철, 1990).

이러한 인지적·행동적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어머니, 교사, 또래 등의 대인관계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Compbtman & Paulauskas, 1979).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아동은 교사로부터 자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또래에게서 소외됨으로써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관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게된다(김선·임혜숙, 199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력 결핍과 충동적인 특성은 어느 정도 호전되기도 하나, 학업수행에서의 결함 및 행동장애는 더 큰 문제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부적응 등의 문제가 지속되기도 한다(Barkely, 1990). 또한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행동 혹은 낮은 자존감 등도 계속 문제로 남아있게 되며 그 치료 효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은혜, 1992).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력 발달을 평가하고 이것을 다양한 행동 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동안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 적응 수준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을 밝히는 연구 및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모색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많은 연구들은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의 하나가 아동이 학업성취의 결과임을 밝혀주고 있다. 손희준(1987)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학생은 수업장면이나 교우, 교사, 학생들로 부터 고립되어 결국 학생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희옥(1987)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 부적응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필(1990)의 연구 역시 학교생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ADHD로 진단 받은 아동의 행동 증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로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주의력 측정을 통해 일반 아동들의 주의력 발달 경향과 나아가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동들의 주의 집중 문제가 개인, 학교,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근거로 아동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요소를 알아내며 이를 극

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의 집중과 학업 성취와 또 학교생활 적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의력을 측정하고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 나.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 다.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3. 용어 정의

### 가. 주의력

본 연구에서 주의력이란 CCTT-1(지속적 주의력)와 CCTT-2(분할 주의력)로 의미를 규정하며 한국판 표준화 검사인 아동색선로검사(CCTT)(신민섭, 구훈정, 2007)에서 아동이 얻은 측정치의 표준점수로써 해석하였다.

## 나. 학업성취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학기 기말고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어, 수학 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 다.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이란 학생이 학교 환경, 학교 교사, 학교 수업, 학교 친구, 학교생활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주의력의 발달

#### 가. 주의력(Attention)의 개념 및 특징

‘주의한다’라는 것은 과제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며 계속 진행되는 사건으로부터 과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지각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Gibson & Rader, 1979). 그러나 주의에 대한 정의는 이론마다, 학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이론 내에서 주의는 목적적 조작(Purposeful operation)으로 보여진다(임영미, 1990).

정보처리 이론이 대두되면서부터 고조된 주의집중에 대한 관심은 주의집중을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볼 뿐 아니라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심리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정보처리 이론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의식의 명료성이나 집중 또는 주의의 유지, 변이와 같은 다소 차이가 있는 의식의 측면으로 다루고 있어 연구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동적인 측면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측면으로 구분 짓는 사람도 있고 주의의 능동적인 면을 집중(concentration)이란 의미로 수동적인 면을 주의(attention)란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Silverman(1964)은 확산적 주의(extensive attention)와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집중을 설명하였다. 그는 확

산적 주의는 유입되는 자극을 조절하는 요인이며 선택적 주의는 자극유입의 수용을 활용할 때 자극을 조절하는 요인이라 말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주의집중이란 유기체가 특별한 자극입력에 그의 수용기를 향하게 하는 행동이며 이 입력이 변용되는 중심처리과정을 의미한다.

또 주의는 선택(selection), 유지(maintenance), 전이(shift)의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주의집중의 선택은 부적절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란 자극이 일단 선택되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주의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전이란 주의가 한곳에서 다른 한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Samuels(1981)는 주의집중의 내용으로 각성, 명료성, 경각성, 선택적 주의집중을 들었고 Traver(1974)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경각심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논의하였고 Mcnellis(1984)는 각성, 경각심, 선택적 주의집중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학력전기 또는 학령기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며 장애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아기의 정신질환들 중의 하나로써 부주의(inattention), 충동성(impulse),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행동 패턴들이 일정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학령기 발달 장애 중의 하나이다(이정은, 2000)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좌절에 대한 참을성의 부족, 자극적인 놀이를 제외한 과제에 대한 낮은 수행동기, 과제수행 시 지속성의 부족,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 예측을 잘 하지 못함, 실수를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행동특성을 나타낸다(김혜리, 2005).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로 분류되며 학령기 아동의 3~8.6%가 이에 해당된다(김혜리, 2005).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에서 1, 2, 3학년 재학생 2899명을 대상으로 행동문제 아동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6%인 249명이 주의력결함·산만성 행동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평균 3~4명의 주의력 결핍, 산만 아동이 전문가나 교사, 가족들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이상복, 이산훈, 이효신, 1996).

주의 집중의 문제는 아동의 행동 발달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적 환경안에서 경우에 따라 다소 그 의미는 다르지만 주의집중이 관련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학습과정과 주의집중을 관련시켜 볼 때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 및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인지의 모든 정신과정은 유기체가 환경 속의 자극 정보를 지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적극적·선택적으로 관련자극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학습장면에서는 더욱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주의집중이 요구된다.

## 나. 주의력의 측정

### (1) 아동용색선로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CCTT)

#### (가) 선로 잇기 검사의 특성

선로 잇기 검사 A유형과 B유형(Reitan, 1979b)은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5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정통 신경심리검사 (orthographic neuropsychological test)다.

아동 선로 잇기 검사 A와 B(Children's Trails Making Test A & B)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인용 선로 잇기 검사의 축약형으로 개발이 되었다(Reitan, 1971). 성인용과 아동용 선로 잇기 검사 모두 최근 표준화된 할스테드-레이탄 신경심리 종합검사에서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 몇몇 검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꼭 포함되는 필수적인 검사의 하나다(Sweet & Moberg, 1990).

아동 선로 잇기 검사는 A, B 두가지 유형이 있다. 선로 잇기 검사 A형은 일정하지 않은 순서로 흩어져 있는 1에서 15까지의 숫자가 그려져 있는 원들을 오름차순에 따라 가능한 빨리 선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검사다. 아동 선로 잇기 검사 B형은 일정하지 않은 순서로 흩어져 있는 1에서 8까지의 숫자가 그려져 있는 원들을 오름차순에 따라 가능한 빨리 선으로 연결하되 A부터 H까지의 글자가 써진 원과 번갈아 가면서 연결하는 검사다.

#### (나) 아동 색 선로 검사(CCTT) 개발의 이론적 배경

아동 색 선로(Kid's Color Trails)와 K 색 선로(K Color Trails)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CCTT)'는 아동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정통 신경심리검사 도구로 D'Elia와 Satz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기한 여러 중대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검사다. 아동 색 선로 검사(이하 CCTT)는 성인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색 선로 검사(D'Elia, Satz, Uchiyama, & White, 1996)를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다.

아동 색 선로 검사(CCTT)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극이 숫자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어린 아동의 초기 인지적 성숙도와 일치하도록 선택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특히 유아기나 어린 아동들의 색분류기능이 발달해가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색을 자극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달학적 근거 이외에도 CCTT에서 색을 사용하는 것은 더 넓은 연령층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검사 자극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평가 시 아동의 흥미와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CTT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서 숫자를 사용한 것이 역시 발달학적 적절성을 고려한 결과다. 비록 어느 정도 변산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어린 아동의 경우 기본 숫자에 대한 준비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CCTT의 지침들은 색 선로검사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전에 다루어졌던 지침들과 유사하다. 실용적 및 심리측정적, 이론적 관심으로 인하여 문맹인 아동, 언어장애나 학습장애 아동, 일차적인 언어가 영어가 아닌 아동, 이문화적 배경에 사는 아동 및 미묘한 신경학적 결함이 있는 아동, 특히 초기 발생기의 주의 및 실행 기술과 관련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의 개발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아동 선로 잇기검사(CTMT) B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알파벳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맹이거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이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아동들이 B형 검사에서 수행이 저조한 것은 영어 알파벳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으며 언어 및 특정 읽기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도가 검사를 완성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Rourke와 Finlayson(1975)은 이러한 CCTT의 제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아동 선로 잇기 검사(CCTT)의 두 유형 모두에서 정상 수행을 보인 아동들은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A형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B형에서 더 저조한 수행을 보인 학습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언어적 능력과 상징화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CCTT는 CTMT가 갖는 이러한 잠재적 오염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검사의 감별적인 특성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자에 대한 의존을 피함으로써 수행에 미치는 언어적 영향력을 최소화 하도록 고안되었다(Laosa, 1984).

스페인과 미국 아동들 간 수행 비교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Leon-Carrion, 1989),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아동 선로 잇기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검사 수행 차이에 대한 문제는 미국 아동과 아프리카 아동의 수행 비교 시에도 관찰된 바 있다(Rosin & Levett, 1989a). 이에 따라 CCTT는 선로 잇기 검사 B형의 영어 알파벳을 모든 문화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가진 색으로 바꾸었다. 비록 인지 신경심리학 문헌에서는 색을 지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상이라는 가정에 대하여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Bornstein, 1973), 색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CCTT에서 범주별 이동을 위한 검사 자극으로 색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CCTT에서 색을 사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글자에 대한 지식이 아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오염 요인들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경심리학적 평가가 워낙 미세한 신경학적 변화를 감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학 전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에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교육받은 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 자체만으로도 문자에 대한 익숙도가 선로 잇기 절차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아동용 선로 잇기 검사 B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어 알파벳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알파벳은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동들도

알파벳을 암송하거나 노래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속에 깊이 입력된다. 따라서 B형과 유사하지만 CCTT-2 검사에서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검사의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수행의 간편성과 대중성 때문에 전통 축약형 아동용 선로 잇기 검사는 종종 복사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체로 복사본의 질이 좋지 않아 목표 자극이 흐릿해지거나 빼돌어져서 결과적으로 검사 해석의 타당도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복사본은 실제 검사보다 조금씩 더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자극간 거리도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CCTT는 시각적 상징물(예: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알려주는 손 표시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을 지시적 단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단서를 사용함으로써 언어적 지시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시 단독으로 CCTT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청력장애나 심한 부주의와 같은 특정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실시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일반인들의 경위 주의(attention)를 하나의 기능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경심리학자나 개업 임상가들은 그것을 단일 구성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의력은 범위, 유형(언어적 혹은 시각적), 기능상의 과정(각성, 지속적 집중력등), 목적 그리고 기저하는 신경학적 연결망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CCTT-1, 단순 주의력, CCTT-2, 주의력 변경과 같은 몇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지는 이질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다양한 신경심리학적인 방식과 절차들을 통해 주의력을 평가해야하는 것이다.

## 2. 주의력과 학업성취

손희준(1987)은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학생들은 수업장면이나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고립되거나 제외되고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다고 하였고 아동의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의 이영재(1989)는 학교생활태도나 학업관계에서 나타내는 지배성과 안정성, 사리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관계 적응도가 높다고 하였다.

주의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반면 주의력 결핍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은 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 문제 해결이나 학업 성취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며 ADHD가 곧 학습 장애 인것은 아니지만 ADHD 아동이 학습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 되었다(정난영, 2002).

신현오(2002)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과 일반 아동의 학습 양식과 학업성취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더 낮았으며 음악 등의 소리를 들으며 학습하기, 간접조명 등의 낮은 조도, 책상보다 소파나 바닥 등에서 편안한 자세로 학습하는 비형식적 디자인, 학습 과제에 대해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는 비구조화된 학습, 또래와 함께 하는 공동 학습 형태, 다양한 학습 형태, 시각 학습, 학습 중 음식물 섭취하기, 학습 중 자주 움직이는 이동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1992)은 주의 산만 및 과잉행동아의 학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산만아 집단이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태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뒤떨어 진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송규옥(199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아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

는데 청소년 역시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일수록 성적이 저조하였고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아는 자아개념이 낮고 불안, 우울의 정서를 지님으로써 학교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혜자와 김옥정(1998)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이 학업문제를 보이는 이유는 학습장면에서 전형적으로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떠돌고, 방해하고, 이동이 잦고, 학교에서의 과제와 숙제를 잘 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으며 매우 비능률적이고 짜임새 없는 학습으로 학업성취의 기복이 심하고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ADHD를 보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과 정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동료, 가족, 교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주의산만 행동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들이 겉으로 들어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 잠재 능력에 비해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학업 이외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송영혜·정은희, 1998).

친구들로 부터 고립된 아동들은 제한된 사회적 학습기회를 갖게 되어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열등한 인지발달을 드러내며 (Horn & Packard, 1985).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저조한 학업성취를 나타낸다(Carter & Sugai, 1988).

### 3. 주의력과 학교적응

#### 가. 적응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지적 기능 발달, 기술의 습득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로 학교집단에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의 소홀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여기서 적응을 살펴보면 사람은 매일같이 신체적, 사회적 및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적성에 맞게 직장을 선택하고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갈등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갈등과 좌절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천말숙, 2003), 또 한 환경과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찾아간다.

Lazarus(1966)는 생물학적 견해에서 적응은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며 심리학적 견해에서는 환경 내에서 일을 위한 개인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Lazarus(1976)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 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Morris(1986)는 적응(adjustment)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우리의 욕구를 환경의 욕구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우리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고 또한 상황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처하려는 성공적인 또는 비 성공적인 시도를 말한다.

Wohlman(1973)은 적응이란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환경과의 관계이며 또한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변화 있는 행동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과의 관계,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 또는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대하여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고 바람직한 경우 우리는 그 개인의 행동 양식을 가리켜 적응이라고 일컫는다(이윤숙, 2004).

적응이란 개념에는 개체와 개체의 요구, 그리고 환경이란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 있는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환경을 개인적인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Lazarus(1976)는 실제로 적응은 두 가지 종류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노숙영(1997)은 적응을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는 조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욕구좌절 또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민영순(1980)은 적응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라는 소극적 의미와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해 나가고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이 두 가지 면은 상호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병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환경 사이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 유대의 과정이며 욕구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적응이라 할 수 있다(이선희, 1992). 심리학적 차원에서 본 적응이란 개인이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즉 개체와 환경과의 균형있는 조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였다(한미경, 2003).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적응이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순응해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 독창성을 잃지 않고 자기실현 욕구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로서 개인이 최대한의 자기 발달과 자기실현으로 접근하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선희, 1992).

적응이란 생활체가 자기 자신과 그 환경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게 되도록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든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단순히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켜가는 적극적인 의미이며 개체 자신이 환경의 요구와 필요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개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욕구좌절이나 갈등, 주변의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최대의 가능성을 발휘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인숙, 2004).

원래 적응은 생물학의 순응(adaptation)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환경변화에 있어서 개체의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개념이나 심리학적으로 적응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개체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때문에 개체의 기능적 혹은 학습된 변화이며 행동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조은숙, 1994).

반면 부적응은 개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역학적 균형과 조화를 잃고 주변 환경, 사회적 규범 및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며지 좌절, 긴장, 불안, 갈등, 불만족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로 개개인의 적응 행동이 통합되어 있지 않거나 통합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태로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이탈되어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단순히 환경적 욕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환경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나. 학교적응

교육의 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정, 학교, 사회로 볼 수 있다. 그 중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볼 때 학생들의 학교적응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받은 공규적 영역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하는데 넓은 뜻에서 학교에서의 비

교육적 영역도 학교생활에 포함된다. 학교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다(정수현, 2008).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 환경적인 공간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엄순명, 2002).

학교는 아동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곳이다. 아동들이 사회화를 익히는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있어 학습의 장이며 성취의 장인 동시에 재미도 있어야 할 곳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학교에 가기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하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며 학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들은 학교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다른 아동들과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아동기의 전체적인 발달, 학교와 친구 그리고 가정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개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박혜경, 2000)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당면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춘희, 2000).

학교적응의 개념은 학습자들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상황에서 지적·정서적·심리/운동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들 스스로가 학교에서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가정·학교·사회 등이 세 차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동화하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에게는 학교라는 차원이 그들의 생활 그 자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이란 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습자들의 지식과 기능의 습득과 발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학습자들이 학교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동화와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교육적 상황에서 본 적응의 의미는 인지적/정의적/심리·운동적 차원의 교육적인 과정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조화롭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학교적응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수업·학교생활·학교 내의 친구와의 관계·교사와의 관계·학교환경 등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의 제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하는 학습자의 성공적 혹은 비 성공적인 시도” 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태도는 순수한 정의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며, ‘적응’은 자아개념·불안·학습동기·통제의 소재(귀인성향)·태도·흥미 등의 정의적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지적/행동적 차원의 특성을 공유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개념이다(김용래, 1993, 2000; 김용래 외, 1991).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가들의 영역 가운데 김용래(2000)가 1993년과 1995년에 걸쳐 제작·보완·수정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여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수업·학교생활·학교 내의 친구와의 관계·교사와의 관계·학교환경 등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의 제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

에서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하는 학습자의 성공적 혹은 비 성공적인 시도” 라고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안영복, 1984).

김제한(1993)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요구, 감정, 사상 등이 사회의 요구나 규범에 비추어 갈등이나 긴장이 일어날 때, 그리고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지니고 적응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적절한 적응의 형식을 발견하지 못할 때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Barbe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며 Heck은 집단이 설정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으로부터 배척되고 무시당하는 학생을 이상적 문제행동을 소유한 학생으로 보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상실하고 무단결석이 잦으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배대준, 2002).

이처럼 아동 개인이 학교생활에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생리적 긴장이 발생되고 마음의 균형이 상실되어 적응 상태와는 반대로 불안, 절망,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박준수, 1987).

학교생활 속에는 학생상호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습에 임하는 것,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 학교행사에 참여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

다(천말숙, 2003). 학교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여건을 자사의 욕구와 적절히 조절하고 학교의 제반 조건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업성적은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적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혜진, 2003).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생활의 중심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의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 등 인생의 목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라는 생활 장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폭넓은 경쟁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반적인 자유와 공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단순히 지적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닌 인격의 형성에도 목적이 있다. 즉 학교는 적응하는 인상으로서의 개체와 환경과의 근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양자의 사이에 긴장이나 감정적 대립이 없이 자신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감정과 가치관 등을 가지는 역동적인 체제로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길러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백대준, 2002).

배진화(2002)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학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 적응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부적절한 대처는 학교적응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학교 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먼

지 자기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며 학교 환경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정서의 안정을 추구하며 사회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DHD를 보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과 정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동료, 가족, 교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주의산만 행동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들이 겉으로 들어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 잠재 능력에 비해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학업 이외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송영혜·정은희, 1998).

ADHD 아동들은 적응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기회를 낭비하기 보다는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면 학교 적응문제는 학교 교사에게는 물론 부모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진경(1980)은 학교생활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일과의 대부분을 접하는 학교생활에서의 교우간의 학력차, 학교의 시설과 규모, 학업성취동기의 상실, 학교의 지역지명도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심리적 갈등과 곤경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위의 연구를 요약해 보면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과 학교 적응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른 발달적인 과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품행장애는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촉진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교사, 교우, 부모들의 영향이 매우 클 것 이며 여러 가지 자원과 특성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적응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

할 수도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M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29명(48.3%), 여학생이 31명(51.7%) 총 6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 나. 연구절차

2007년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M초등학교 6학년 중 두 반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현 초등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학반의 사정을 비교하여 두 반을 선정하였고 미리 두 학급에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실시 기간, 소요시간, 질문지와 CCTT 검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이 중 CCTT 검사가 불가능한 특수반 아동 2명과 왼손잡이 3명을 제외한 총 6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 도구

### 가. 아동용색선로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CCTT)

아동 색 선로 검사는 지각 추적 능력, 정신 운동 속도, 순차적 처리 능력 및 분할 시각 주의력과 지속적 시각 주의력을 측정하는 전두엽 관련 검사다. 기존의 선로 잇기 검사(TMT)가 ‘글자’를 자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어 및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지 및 발달적 특성에 적절한 검사를 개발하고자 ‘글자’를 ‘색’으로 대체하여 새롭게 개발되었다. 숫자가 적혀진 원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CCTT-1과 숫자가 적혀진 원을 순서대로 연결하되 원 안의 색(분홍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연결해야 하는 CCTT-2 하위검사로 구성되어있다.

아동의 심경심리기능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도구인 CCT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성인 색 선로 검사를 모델로 하여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에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

둘째, 선로 잇기 검사(TMT)의 심리측정적 원칙들을 적용함과 동시에 아동의 발달학적 체계를 고려하였다.

셋째, 글자 대신 색과 숫자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로 인해 언어라는 잠재적 오염요인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횡문화적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아동,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아동, 읽기 및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각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를 가진 다양한 아동의 임상평가가 가능해졌다.

넷째, CCTT는 주의력이나 초기 집행기능 장애와 같은 미세한 신경학적 기능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언어적 지시뿐만 아니라 손모양 기호와 같은 시각적 지시 단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장애아와 같은 특정 집단에의 실시 가능성도 높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대안 검사를 제공하여 재검사 실시가 용이해졌으며, 과거에 연구 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던 복사본 사용으로 인한 왜곡과 잠재적 문제들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학업성취

2007년 6월과 2007년 12월에 실시된 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년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중 주요과목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문항 수는 각 25문항씩 이었다.

#### 다. 학교적응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용래(2000)가 1993년과 1995년에 걸쳐 제작·보완·수정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의 하위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등 5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아동이 학교와 학급에서 적응을 얼마나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문항의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과 각 항목별 Cronbach's  $\alpha$  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학교적응 검사문항의 신뢰도

영역	내용 및 문항번호(문항수)	Cronbach's $\alpha$
학교 환경 적응	<p>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정도</p> <p>10, 12, 11, 9, 13, 16, 14, 7, 15 (9)</p>	.90
학교 교사 적응	<p>학습자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인간관계의 정도</p> <p>29, 28, 27, 31, 32, 30, 26, 24, 25 (9)</p>	.90
학교 수업 적응	<p>학습자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유발하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있는 정도</p> <p>40, 39, 38, 33, 35, 37, 34, 41 (8)</p>	.77
학교 친구 적응	<p>학습자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가는 정도</p> <p>23, 18, 22, 20, 19, 17, 21, 5 (8)</p>	.79
학교 생활 적응	<p>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가는 정도</p> <p>3, 2, 4, 1, 8, 6, 36 (7)</p>	.78
학교 적응 전체	총 41 문항	.90

###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에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 3 은 아동이 얻은 주의력 표준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한 후 , 이러한 주의력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점수 분포

연구문제 1의 초등학생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관계 변인인 초등학생의 주의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점수 분포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주의력을 CCTT-1과 CCTT-2로 구분하고 학업성취를 알기위해 각 학기 국어와 수학 점수와 또 그 둘을 합한 학업 성취 평균을 알아보았고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인 환경과 교사, 수업, 친구, 생활의 평균을 내고 그 모두를 합한 적응력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점수 분포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CCTT-1	97.76	12.99	103.26	13.33	100.60	13.25
CCTT-2	103.32	15.83	105.90	10.01	104.66	13.09
주의력 전체	101.09	11.70	105.18	9.02	103.21	10.51
국어	82.97	9.38	87.68	7.87	85.40	8.88
수학	79.78	13.67	78.44	15.27	79.08	14.41
학업성취	81.37	10.81	83.06	10.80	82.24	10.74
환경 적응	3.07	.81	3.50	.75	3.29	.80
교사 적응	3.33	.79	3.60	.76	3.47	.78
수업 적응	3.16	.52	3.00	.68	3.08	.60
친구 적응	3.38	.64	3.50	.65	3.45	.64
생활 적응	3.45	.69	3.56	.58	3.51	.64
학교적응 전체	3.27	.55	3.44	.58	3.36	.57

<표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력에서는 CCTT-1이 남학생이 M=97.76 (SD=12.99)이고 여학생이 M=103.26 (SD=13.33)으로 여학생의 CCTT-1이 좀더 높게 나타났고 CCTT-2 또한 남학생이 M=103.32 (SD=15.83)이고 여학생이 M=105.90 (SD=10.01)으로 여학생이 점수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T-2보다 CCTT-1의 남녀 차이가 조금 더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두 가지 주의력 다 여학생이 높았으므로 당연히 주의력 전체 평균도 남자가 M=101.09 (SD=11.70)여자가 M=105.18 (SD=9.02)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에서는 국어에서는 남학생이  $M=82.97$  ( $SD=9.38$ )이고 여학생이  $M=87.68$  ( $SD=7.87$ )로 여학생이 5점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수학은 남학생이  $M=79.78$  ( $SD=13.67$ ), 여학생이  $M=78.44$  ( $SD=15.27$ )로 남학생이 1점 정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국어와 수학을 합한 학업성취 평균에서는 남학생이  $M=81.37$  ( $SD=10.81$ ), 여학생이  $M=83.06$  ( $SD=10.80$ )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에서는 환경적응, 교사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은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수업적응만 남학생이  $M=3.16$  ( $SD=.52$ ), 여학생이  $M=3.00$  ( $SD=.68$ )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적응 평균은 남학생이  $M=3.2$  ( $SD=.55$ ), 여학생이  $M=3.44$  ( $SD=.58$ )로 여학생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의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 와 같다.

<표 3>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a	1								
b	.41**	1							
c	.31*	.49***	1						
d	.11	.39**	.69***	1					
e	-.03	.12	.18	.01	1				
f	.10	.15	-.06	-.12	.58***	1			
g	.13	.25	.15	-.00	.49***	.48***	1		
h	-.00	.09	-.01	-.19	.66***	.62***	.55***	1	
i	.03	.10	.12	-.02	.70***	.46***	.63***	.47***	1

\*p<.05 \*\*p<.01 \*\*\*p<.001

a: CCTT-1, b: CCTT-2, c: 국어성취, d: 수학성취, e: 환경적응, f: 교사적응, g: 수업적응, h: 친구적응, i: 생활적응

위의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주의력에 따른 학업 성취를 비교해보면 우선 CCTT-2와 CCTT-1 모두 학업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국어성취  $r=.49$ 와 수학성취  $r=.39$ 로 CCTT-1의 국어  $r=.31$ 과 수학  $r=.11$  보다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동의 학업성취에서는 CCTT-1 보다 CCTT-2가 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에서의 여러 변인들 중에서는 CCTT-2가 조금 더  $r$  값이 높긴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어성취와 수학성취 모두 학교적응 다섯 가지 하위 변인인 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력은 학업성취에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 특히 국어성취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주의력과 학교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주의력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 가. 아동의 지속적 주의력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

아동의 CCTT-1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는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CTT-1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와 같다.

<표 4> CCTT-1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종속	집단(n)	M	SD	t
국어	하(24)	81.83	9.73	-2.67*
	상(36)	87.78	7.50	
수학	하(24)	76.04	17.19	-1.34
	상(36)	81.11	12.05	
학업성취 전체	하(24)	78.94	12.58	-2.00*
	상(36)	84.44	8.38	

\* p<.05

위의 <표 4>에서 제시된 CCTT-1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를 살펴보면 CCTT-1이 높은 상위 집단의 학업성취 결과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업성취 전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국어성적이 높은 상위 집단의 평균은  $M=87.78$  ( $SD=7.50$ )이며 하위집단은  $M=81.83$  ( $SD=9.73$ )으로  $t= -2.67$ ,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상위집단의 평균은  $M=81.11$  ( $SD=12.05$ ), 하위집단은  $M=76.04$  ( $SD=17.19$ )로  $t= -1.34$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업성취 전체로 살펴봤을 때 CCTT-1 전체 상위집단의 학업성취 평균이  $M=84.44$  ( $SD=8.38$ ), 하위집단 평균  $M= 78.94$  ( $SD=12.58$ )로써  $t= -2.00$ ,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CCTT-1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학업성취 결과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아동의 CCTT-2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

아동의 CCTT-2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는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CTT-2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100점)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와 같다.

<표 5> CCTT-2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종속	집단(n)	M	SD	t
국어	하(24)	81.76	9.72	-2.13*
	상(36)	87.12	8.30	
수학	하(24)	73.20	17.34	-2.00
	상(36)	81.23	12.71	
학업성취 전체	하(24)	77.49	12.48	-2.20*
	상(36)	84.18	9.68	

\*p<.05

위의 <표 5>에서 제시된 CCTT-2 집단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를 살펴보면 CCTT-2가 높은 상위 집단의 학업성취 결과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업성취 전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국어성적이 높은 상위 집단의 평균은 M=87.12 (SD=8.30)이며 하위집단은 M=81.76 (SD=9.72)이며  $t = -2.13^*$ ,  $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상위집단의 평균은 M=81.23 (SD=12.71), 하위 집단은 M=73.20 (SD=17.34)이며  $t = -2.00$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업성취 전체로 살펴 봤을 때 CCTT-2 전체 상위집단의 학업성취 평균이 M=84.18 (SD=9.68), 하위집단 평균 M= 77.49 (SD=12.48)로써  $t = -2.20^*$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CCTT -2가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학업성취 결과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아동의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업 성취

아동의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는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의력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100점)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와 같다.

<표 6>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 검증

종속	집단(n)	M	SD	t
국어	하(24)	82.29	10.24	-2.05*
	상(36)	87.08	7.68	
수학	하(24)	76.43	15.80	-1.05
	상(36)	80.51	13.60	
학업성취 전체	하(24)	79.36	12.00	-1.54
	상(36)	83.80	9.84	

\*p<.05

위의 <표 6>에서 제시된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력이 높은 상위 집단의 학업성취 결과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업성취 전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국어성적이 높은 상위 집단의 평균은 M=87.08 (SD=7.68) 이며 하위집단은 M=82.29 (SD=10.24)로 t= -2.05\*,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상위집단의 평균은 M=80.51 (SD=13.60), 하위집단은 M=76.43 (SD=15.80)로 t= -1.05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업

성취 전체로 살펴 봤을 때 주의력 전체 상위집단의 학업성취 전체 평균이  $M=83.80$  ( $SD=9.84$ ), 하위집단 평균  $M=79.36$  ( $SD=12.00$ )로써  $t=-1.5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즉 주의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 중 국어 과목에서는  $p<.05$  안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나 수학 과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의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국어와 수학의 평균 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알 수 있다.

#### 4. 아동의 주의력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 가. 아동의 CCTT-1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아동의 CCTT-1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CTT-1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100점)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와 같다.

<표 7> CCTT-1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종속	집단(n)	M	SD	t
환경평균	하(24)	3.19	.76	-.82
	상(36)	3.36	.84	
교사평균	하(24)	3.38	.70	-.78
	상(36)	3.54	.83	
수업평균	하(24)	2.91	.59	-1.76
	상(36)	3.18	.60	
친구평균	하(24)	3.34	.61	-1.06
	상(36)	3.52	.66	
생활평균	하(24)	3.38	.63	-1.32
	상(36)	3.60	.63	
적응평균	하(24)	3.24	.47	-1.34
	상(36)	3.44	.62	

위의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CCTT-1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력이 높은 상위 집단의 학교적응 하위 요소인 환경 (CCTT-1 상 집단 M=3.36 (SD=.84), 하 집단 M= 3.19 (SD=.76)), 교사(상집단 M=3.54 (SD=.83), 하 집단 M= 3.38 (SD=.70)), 수업(상 집단 M=3.18 (SD=.60), 하 집단 M= 2.91 (SD=.59)), 친구(상 집단 M=3.52 (SD=.66), 하 집단 M= 3.34 (SD=.61)), 생활평균(상 집단 M=3.60 (SD=.63), 하 집단 M= 3.38 (SD=.63))중 상위집단의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학교적응 전체를 보아도 CCTT-1 상 집단 M= 3.44 (SD=.62), 하 집단 M= 3.24 (SD=.47)이며 t= -1.34 로써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아동의 CCTT-2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아동의 CCTT-2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CTT-2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100점)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와 같다.

<표 8> CCTT-2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검증

종속	집단(n)	M	SD	t
환경평균	하(24)	3.30	.64	.21
	상(36)	3.25	.86	
교사평균	하(24)	3.29	.85	-1.12
	상(36)	3.54	.76	
수업평균	하(24)	3.00	.71	-.76
	상(36)	3.14	.54	
친구평균	하(24)	3.32	.61	-.90
	상(36)	3.50	.66	
생활평균	하(24)	3.56	.75	.42
	상(36)	3.48	.60	
적응평균	하(24)	3.29	.56	-.54
	상(36)	3.38	.58	

위의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CCTT-2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력이 높은 상위 집단의 학교적응 하위 요소인 환경 (CCTT-2 상 집단 M=3.25 (SD=.86), 하 집단 M= 3.30 (SD=.64)), 교사(상집단 M=3.54 (SD=.76), 하 집단 M= 3.29 (SD=.85)), 수업(상 집단 M=3.14 (SD

=.54), 하 집단 M= 3.00 (SD=.71)), 친구(상 집단 M=3.50 (SD=.66), 하 집단 M= 3.32 (SD=.61)), 생활평균(상 집단 M=3.48 (SD=.60), 하 집단 M= 3.56 (SD=.75))중 상위집단의 점수가 약간 높은 교사 평균, 수업평균, 친구 평균이 있지만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환경평균과 생활 평균은 오히려 CCTT-2 하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로 살펴볼 때 CCTT-2와 학교적응은 CCTT-2 상 집단 M=3.38 (SD=.58), 하 집단 M = 3.29 (SD=.56)이며  $t = -.54$  로써 CCTT-2 점수에 따른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아동의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아동의 주의력 전체 점수의 상, 하집단간 학교 적응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의력 전체 집단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100점)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표 9>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검증

종속	집단(n)	M	SD	t
환경평균	하(24)	3.34	.62	.35
	상(36)	3.27	.90	
교사평균	하(24)	3.30	.66	-1.33
	상(36)	3.57	.83	
수업평균	하(24)	2.88	.63	-1.88
	상(36)	3.19	.57	
친구평균	하(24)	3.34	.55	-.89
	상(36)	3.50	.68	
생활평균	하(24)	3.45	.65	-.46
	상(36)	3.53	.63	
적응평균	하(24)	3.26	.44	-.96
	상(36)	3.43	.62	

위의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의력 전체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력이 높은 상위 집단의 학교적응 하위 요소인 환경 (주의력 상 집단 M=3.27 (SD=.90), 하 집단 M= 3.34 (SD=.62)), 교사(상 집단 M=3.57 (SD=.83), 하 집단 M= 3.30 (SD=.66)), 수업(상 집단 M=3.19 (SD=.57), 하 집단 M= 2.88 (SD=.63)), 친구(상 집단 M=3.50 (SD=.68), 하 집단 M= 3.34 (SD=.55)), 생활평균(상 집단 M=3.53 (SD=.63), 하 집단 M= 3.45 (SD=.65))중 환경 평균을 제외하고 상위집단의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학교적응 전체를 보아도 주의력 전체 상 집단 M=3.43 (SD=.62), 하 집단 M= 3.26 (SD=.44)이며 t= -.96 로써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아동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과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해 학업성취의 문제를 일으켜 학습 부진을 초래하기도 하고 주변 아동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학급전체의 수업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보이며 다른 아동들과 잦은 싸움으로 인해 교사와 부모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가 많고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학교적응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인 보통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단계는 아니지만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동들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수업 중에 볼 수 있는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동들과 학업 성취의 차이와 또 학교적응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M초등학교 6학년 아동 60명 (남자: 29명, 여자: 31명)을 대상으로 CCTT 검사를 실시하고 김용래(2000)에 의해서 개발된 학교적응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 12월 26~28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주의력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 집단과 평균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서 주의력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아동의 CCTT-1과 CCTT-2는 모두 학업성취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국어성적에 영향을 조금 더 준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력과 학교적응은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업성취와 학교적응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손희준(1987)은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학생들은 수업장면이나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고립되거나 제외되고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다고 한 것은 본 연구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배진화(2002)의 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학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 적응이 낮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의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의 이영재(1989)도 학교생활태도나 학업관계에서 나타내는 지배성과 안정성, 사리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관계 적응도가 높다고 한 것도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반면 (송영혜·정은희, 1998)의 주의가 부족한 아동의 과제 수행능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와 또 김혜리(2005)의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문제뿐 아니라 좌절에 대한 참을성의 부족, 자극적인 놀이를 제외한 과제에 대한 낮은 수행동기, 과제수행 시 지속성의 부족,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 예측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를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는 학업성취와 주의력을 관련시켜 보았을 때 주의력이 높은 아동이 학업성취 결과도 좋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는 CCTT-1과 CCTT-2 모두 주의력이 높은 아동이 학업성취 결과도 좋다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들이 겉으로 들어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 잠재 능력에 비해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학업 이외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송영혜·정은희, 1998)는 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김혜리(2005)의 연구와 같이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이 과제수행 시 지속성의 부족하다는 결과와도 다소 일치한다.

주의력과 학업성취의 연구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난영(2002)의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은 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 문제 해결이나 학업성취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ADHD 아동이 학습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하며 신현오(2002)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임수경(1992)의 주의 산만 및 과잉행동아의 학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주의 산만아 집단이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태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아서도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한다.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은 학업적인 면이 일반 아동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CCTT-1과 또 CCTT-2 모두 학교적응은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주의력과 학교적응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송영혜·정은희(1998)의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아의 경우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과 정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동료, 가족, 교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주의력, 학업성취, 학교적응 간의 상관 관계에서 아동의 CCTT-1과 CCTT-2는 모두 학업성취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력과 학교적응, 그리고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은 아무런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의력과 학업성취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주의력과 학교적응,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는 CCTT-1과 CCTT-2 모두 학업성취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CTT-1(지속적 주의력)과 CCTT-2(분할 주의력) 모두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주의력이 높은 아동이 학업 성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동의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CCTT-1과 또 CCTT-2 모두 학교적응은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의력 결핍 과잉 아동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주의력에 따라 학교적응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본 연구와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6학년에 한하여 표집된 바 후속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연령층 및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주의력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용 색 선로검사(CCTT)의 어려움으로 최소인원인 6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연구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주의력이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 참 고 문 헌

- 곽경화 (2002).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혜숙 (1994). 학교적응과 비학문간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복 (2002).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종남 (2006). 인지행동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주의력결핍 및  
충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송자 (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문, 17권, 3-37.
- 김영혜 (2005). 주의력 결핍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 (2005).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귀영 (2003). 자기통제훈련이 ADHD아동의 주의집중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난숙 (1997). **Methy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인지, 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영광 (2001). **초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오 (20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섭·구훈정 (2007). **아동 색 선로 검사**. 서울: 학지사.
- 손희준 (1995). **고등학생 우울 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규옥 (1992). **과잉행동아의 정서적 특성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영혜, 정은희 (1998). 형제 놀이를 이용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2(1), 99-120.
- 이경숙 (2006). **초등학생 과외학습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훈 (2005). **부모 및 또래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199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행동지도 방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숙희 (2001). **가정환경과 아동의 주의집중력 발달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필 (1990). **학교 생활 적응 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재 (1989).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숙 (2006). Feuerstrin의 도구 심화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학습 경험이 ADHD아동의 선택적 주의집중과 지속적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경 (1980).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문제, 실패 및 욕구에 관한 조사. 간호2.
- 임미은 (2003). 만다라 그리기가 초등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수경 (1992).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아의 학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혜숙·김선 (2002). 주의산만 아동에 대한 이해와 훈련 프로그램. 서울: 특수교육
- 정숙자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수현 (2008). 초등학생의 게임몰입정도와 자기조절 능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선 (200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 간 평정 일치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난영 (2002). 학교적응향상 프로그램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경향의 아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주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및 학업 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봉환 (2000). 인지행동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ADHD 경향 아동의 학업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봉환, 임경희 (2002). 게임을 이용한 행동적 집단 상담이 ADHD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3(5), 167-182

조수철 (199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개념과 생물학적 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1). 5-26.

조수철, 신윤오 (1994). 파탄적 행동장애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 *소아·청  
소년 정신의학*, 5(10). 141-149.

조수철외(2001). *주의력결핍정신의·과잉운동장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Barkley, R, A(1990).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ornstein, M. H. (1973). Color vision and color naming: A psychological  
hypothesis of cultural difference. *Psychological bulletin*, 80,  
257-285.

Conners, C. K. (1998). Rating scales i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Use in assessment and treatment Monitoring.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70), 24-30.

D'Elia, L. F., Satz, P., Uchiyama, C. L., & White, T. (1996). *Color  
Trails Test: professional manual*. Ode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Lasosa, L. M. (1984). Ethnic, socioeconomic and home influences upon  
early performance on measures of 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178-1198.

- Lazarus, R. S. (1976).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processes*. New York: McGraw Hill.
- Lerner, J., Lowenthal, B., & Lerner, S. (1995).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ssessment and teaching*. 박현숙 (역)(1998). *주의집중장애의 평가와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Rourke, B. P., & Finlayson, M. A. (1975). Neuro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variations in patterns of performance on the Trail Making Test for olde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ica* , 84, 412-421.
- Sweet, J. J., & Moberg, P. J. (1990). A survey of practices and beliefs among ABPP and non-ABPP clinical neuropsychologists. *The Clinical Neuropsychologist*, 4, 101-120.

## <부 록>

<부록1> 학교적응 검사지



## 학 교 적 응 척 도

다음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하나에만 V표 하세요.

M초등학교 6학년 ( )반 ( )번 이름 :

번호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학교생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잘 따른다.					
2	나는 학교의 모든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3	나는 학교에서 마련한 시설이나 비품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활한다.					
4	나는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차질없이 해나간다					
5	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6	나는 학교에 부여하는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7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					
8	나는 교내의 안내 게시물을 잘 살피고 교내방송을 주의깊게 듣는다.					
9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석 구석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10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11	나는 우리학교내에 있는 어느 공간에 대해서든 편안함을 느낀다.					
12	나는 우리학교 환경을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13	나는 우리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한다.					
14	나는 우리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15	나는 우리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믿는다.					
16	나는 지금의 학교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					
18	나는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나의 문제에 우리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20	나는 우리 학교 친구 중 어려움을 당하면 잘 도와준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학교에서 어떤 일로 친구와 다투는 경우면 내가 먼저 사과한다.					
22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23	나는 내 고민거리를 우리학교 친구와 제일 먼저 의논한다.					
24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한다.					
25	나는 학교 밖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26	나는 편애 없이 공평하고 친절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27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다정함을 느낄 때가 많다.					
28	나는 우리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29	나는 학교 내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을 감사한다.					
30	나는 열심히 가르치시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31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자상하고 가까이 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느낀다.					
32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처럼 느껴진다.					
33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					
34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다.					
35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시간에 이해한다.					
36	나는 우리 학교 내에서 생활이 즐겁다.					
37	나는 어떤 교과목의 수업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38	나는 학교의 수업내용에 대해서 언제나 연습하고 복습하는 편이다.					
39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정리하고 있다.					
40	나는 학교의 모든 교과목 수업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41	나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수업활동이라고 믿는다.					

